

프로그램 운영 제안서

프로그램명	초등 글쓰기 수업 (나의 작은 생각을 글로 쓰기까지)	강사명	이소영
교재명		출판사	
운영비용	-교재는 없습니다. 매번 강사가 준비한 ppt와 프린트물이 나갑니다.		

▶ 프로그램 소개

글쓰기가 어렵고 막막한 초등학생들을 위한 ‘쓰기 수업’입니다. 쓰기를 잘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조건 쓰기? 무작정 독서? 아닙니다. 쓰기에 앞서 내 생각을 모으고, 이를 잘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쓰는 행위가 친숙해지려면, 가장 친근하고 다정한 글쓰기를 해야 합니다. 바로 내가 가장 잘 아는 소재, 글감이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초등 글쓰기 수업’은 자기소개 적어보기, 우리 동네 글쓰기, 편지쓰기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교적 쉬운 글감입니다. 나의 작은 생각을 글로 쓰는 과정을 걸어봅니다.

▲문장, 어휘 읽기 ▲이야기 따라 쓰기 (필사)도 곁들이는 한편, 공모전도 도전할 생각입니다(한 편의 글을 완성한 친구 대상).

▶ 프로그램 목적

문해력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문해력은 글을 읽고 뜻을 제대로 이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학부모들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학교 교과공부는 물론이고 책읽기도 이제 ‘숙제’가 되었습니다. 한숨은 날려버립시다. 이럴 수록 ‘본질’에 다가가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닌 생각과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이를 이어주는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기자 출신 작가이며, 취미 특기 모두 ‘글쓰기’인 엄마가 예전에 왔습니다. 초등 아이와 함께 도전했던 필사, 용돈 벌이 이상으로 쓸쓸했던 글쓰기 공모전 경험 등 팁을 모두 나눠주고 싶습니다.

더 이상 쓰기가 어려운 숙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이 프로그램의 목적입니다.

▶ 프로그램 운영 방법

- 프로그램은 초등(1~6)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한 반에 저학년과

고학년 팀으로 나눌 예정입니다. 학년은 다양하지만, 각자 쓰기 시간에
일대일로 다가가 코칭이 진행됩니다.

- <글감>을 주제로 한 책, 영화, 뉴스 등을 ppt로 본 후 자신의 글을
써보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처음부터 한 편의 글을 똑딱 쓰는 것이
아니라, 초성 어휘 게임, 포스트잇 1장 쓰기 등 다양한 미션이
주어집니다.)

- *맞춤법은 정확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한글 쓰기가 가능한 학생의
경우 신청해주세요.

주 차	학 습 (활 동) 내 용	준 비 사 항	비 고
1회	-교육목표와 교육진행방향 소개 -강사소개 -그림카드를 활용한 자기소개 (아이스브레이킹, 참가자들의 현황 파악) -그림카드 자기소개를 키워드 글쓰기로 표현하기 <글로 쓰는 자화상> 손거울을 보면서 나의 이것저것 얼굴을 들여다봅니다. 눈썹, 코, 입. 내 모습을 긍정하기 전, 구석구석 나도 몰랐던 내 모습에 놀랍니다. 글로 쓰는 자화상 ‘뽕’, ‘뽕’ 웃음이 터져나옵니다.	필기도구 손거울	
2회	<우리동네 유퀴즈, 글쓰기> 그곳에만 가면, 마음이 놓이나요? 내가 가는 곳은 나를 대변해줍니다. 나의 관심사와 성향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장소 자체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집과 목적지 사이의 공간에서 올라오는 감정이나 추억의 단면, 거리를 배회하며 올라오는 생각들을 살펴봅니다. 글가 가까운 삶을 살려면 자주 뒤돌아보고, 머뭇거리야 합니다. 때로는 내 안에 숨겨져있는 오지랖도 부릴 줄 알아야 합니다. ‘유퀴즈?’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구경을 넘어 들여다보는 우리동네 탐방.	필기도구	
3회	<아끼는 물건 글쓰기> 내가 아끼는 물건, 보물을 가져옵니다. 물건과의 인연, 추억을 모두 담아 소개한 후 글로 적어봅니다.	필기도구	소중한 나의 보물 가져오기 (최대 3개)

4회	<편지 글쓰기> 소중한 이에게 마음을 담은 편지를 써봅니다. 미래의 나에게 쓰는 편지도 괜찮습니다.	필기 도구	